



책읽기와 그리스도인 : 독서법의 두 전통

I. 책에 대한 태도

책과 문자, 그리고 나아가 글 공부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동서 전통에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는 서양전통에서는 플라톤과 데카르트, 동양 전통에서는 선(禪)불교와 노장(老莊) 전통을 들 수 있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1부, 『육조단경』(六祖壇經)의 혜능선사, 그리고 『장자』(莊子) 천도(天道)편의 운편에서는 문자를 통한 공부의 한계와 이를 뛰어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에 반해 기독교와 유대교 전통은 문자와 책을 강조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

II. 주희의 독서법

1. 독서의 목적: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성인이 쓴 글, 즉 경서를 읽어야 한다. 주희는 사서와 오경 가운데 먼저 사서를 읽고 오경을 읽기를 권한다.

2. 독서의 의미: 주희는 공부 (그리고 그것의 방법으로서의 읽기)를 『논어』에서 공자가 한 구분에 따라 위인지학(爲人之學)과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나눈다. 앞의 것은 지식을 쌓아 성공하기 위한 공부라면 뒤의 것은 자신을 개발하여 참된 인간이 되는 공부를 말한다.

3. 독서의 정신: 여기에서 주자는 주체적 독서를 강조한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에게 간절하게 체험하려는(切己體驗) 것이니, 단지 글을 짓기 위해 보아서도 안되고 또한 무언가를 노려서도 안 된다.”(11:37) 주자는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절실할 것’(切己)을 글을 읽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요구한다. “독서는 다만 오로지 종이

에서 이치(理)와 의미(義)를 구하지 않아야 하며 모름지기 돌이켜 자기 자신에 나아가 추론해 나가면서 연구해야 한다”(11:39), “단지 자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 것으로 보지 않으면 생각만 소모할 뿐이다”(11:53)는 말은 모두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글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주자는 자신의 절실한 문제를 위한 독서를 약을 쓰는 일에 비유한다. 병을 다스리기 위해 약을 조제해 두고 복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글을 읽더라도 자신에게서 출발해서 자신을 묻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독서는 자기 자신의 절실한 문제와 관련해서 해야 하고 독서를 통해 각자 도리를 투철하게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자는 누누이 강조한다(10:3; 10:5 참조). ‘자기 자신에게 절실히 한다’(切己) 또는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몸으로 터득한다”(反求諸身)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곧 사람의 본 마음(本心)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자는 “본심(本心)이 오랫동안 매몰되어 바른 이치가 깊숙이 스며들지 않을 때 우선 마땅히 독서하면서 이치를 끝까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1:5). 독서는 또한 마음을 지키는(存心) 수단이다. 그러기에 주자는 “책이란 이 마음을 붙들어 매는 수단이다”라는 장횡거의 말을 기꺼이 인용한다(11:3). “마음을 지키는 것(存心)과 책을 읽는 것(讀書)은 하나”(11:6)라는 것이다. 책 읽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물욕의 마음(物慾之心)이 우세하지 않게 되고 본심의 바른 이치는 저절로 안정되어 견고해진다”(11:5). 독서는, 요컨대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 곧 양심지법(養心之法)이다(11:129). 달리 말하자면 주자의 독서론에서 독서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다.

4. 독서의 방법: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

1) 허심(虛心)의 독서 -마음을 비우고 책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책 자체, 읽고

있는 본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것.” 책을 읽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1:58, 59 참조). 공정하지 못한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없다(11:31 참조).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사사로운 뜻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11:73).

2) 속독과 열독: 서두르지 않고 읽기와 생각하면서 읽기를 뜻한다. 주자는 “독서의 방법은 먼저 속독하려 해야 한다”(10:34)고 말한다. ‘무르익도록’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책에서 눈으로, 눈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다시 몸으로 옮겨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책을 무르익도록 읽자면 “앞을 보고 뒤를 보며,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아야 한다”(10:34). 그리고 “어떤 효험을 기대하지 않아야”(10:35, 36)하고 “조금씩, 자세하게 이해해야”(10:38, 39, 40, 41)하며 “몇 개의 단락”(10:44)을 보거나 “단지 한 권의 책만을 보면서 날마다 단지 한 대목만을 읽어야”하고(10:45), 떠나기 싫은 듯 “머뭇거리고 뒤돌아 연연해해야”(10:46) 한다. 그래서 마치 과일을 먹듯, 그리고 화초에 물을 주듯, 천천히 오랫동안 독서를 해야 한다. 이 때 독서는 정밀해지고 깊어지며 “정밀해지고 깊어진 뒤에 이치(理)는 저절로 이해”되며(10:50) 마침내 “책의 말이 모두 자신의 입에서 나온 듯하고... 책의 뜻이 모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듯”(10:55)하게 될 것이라고 주자는 말한다. 두 번째로 권하는 방법은 “깊이 읽기”, 즉 열독(熱讀)이다. “책은 마땅히 조금씩 보아야 하고, 지극히 깊게 읽어야 한다”(10:37)는 말에서 주자의 방법론이 드러난다. 글을 깊이 읽자면 성인의 언어를 드러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겹, 한 겹씩 감추어진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10:41; 10:80 참조). 그러므로 무엇보다 반복해서 많이 있을 것을 주

자는 권유한다. 대나무를 쪼개듯 글의 큰 마디를 “세 번에서 다섯 반 가량 철저히 이해”(10:14)해야 하고 한번 이해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백여 번쯤 다시 읽어서 그 내용이 자신의 견해와 서로 부드럽게 들게 해야”(10:58)하고 “익숙하게 외어야”(10:61)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기가 합쳐져서 저절로 시원하게 터져”(10:65) 나오고 “수미가 관통”(10:67)해진다고 주자는 말한다. 마음을 집중해서 몸으로 반복 읽어낼 때 비로소 글 뜻을 깨달아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숙독과 열독이 가능하자면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서두르지 않아야, 의심나는 곳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한 걸음 물러나 차근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11:70-73 참조). 그래서 폭 무르익은 가운데, 천천히,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면서” 책을 읽으면 “도리가 저절로 나타난다”(10:30). 숙독과 열독을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하나씩 격물(格物)을 하듯이 책을 읽을 때도 한 단락, 한 단락을 섭렵하되, “걸을 때도 생각하고 앉을 때도 생각해야 깨달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10:48). 물론 글을 읽을 때는 먼저 읽어야 한다. 단지 생각만 하려고 하면 글을 읽을 수 없다. 우선 “입 속에서 읽다 보면 마음속은 한가해져 바른 이치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11:20).

독서의 목적은 곧 성인이 되는 데 있으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이 쓴 글, 즉 경서를 ‘마음을 비우면서’ 누구나 읽어야 한다. 독서를 하는 장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독서를 하는 때는 깨어있을 때이겠지만 때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음과 잠을 잊고서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에게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언제나 나를 살피고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겨냥해야 하고 결국에는 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동화되어 마치 자신이 말한 것처럼 되어야 한다(11:106 참조). 주자 독서론은 마음의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마음은 독서의 출발점이고 독서의 과정이며 독서의 종착점이다. 글을 읽는 목적이 곧 마음을 지키기(存心) 위한 것이다. 글 읽는 것 자체가 주자에게서는 사된 마음을 없애고 마땅히 드러내어야 할 몸의 도리를 실천하는 경건한 삶의 방식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독서는 그러나 단지 마음뿐만 아니라 온 몸을 동원한다. 손, 눈, 입, 그리고 암송할 때 듣는 귀 등이 마음의 독서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고, 몸은 또한 글을 통해 읽은 것을 익히고 실현하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주자의 독서론에 따르면 독서는 일차적으로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는 ‘글공부’이지만 글공부가 겨냥한 것은 ‘마음 공부’이며 마음 공부는 결국 ‘몸 공부’를 떠나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볼 때 ‘글 공부-마음 공부-몸 공부’, 이 셋은 결국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얻는 지행일치란 바로 이 셋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단지 눈으로 읽어 마음으로 이해하고 간직할 뿐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몸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독서와 공부가 완성된다. 서양 최초의 해석학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의 애매성과 모호성, 직접적 의미와 간접적, 상징적 의미, 비유법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 사랑이야말로 성경의 혼이요 목표라면 사랑을 우리 속에서 일구어낼 수 있는 성서 읽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저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법보다는 오히려 주자가 권하는 독서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객관적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일상적 삶 가운데서 나를 이루고 나를 만들어가는 성찰적 독서를 주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III.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의 전통

서양에서는 수도원 중심으로 행해진 영적 읽기(*lectio spiritalis*) 전통이 있다. 수도원은 중세에서 책을 필사하고 책의 문화를 전수한 곳으로 책이 언제나 수도원에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수도원 중심으로 행해진 이 읽기는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고 다른 사람이 듣는 형식을 취했으나 점차 개개인의 읽기에도 적용된 방식이다. 영적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소리내어 읽고(*lectio*), 묵상하고(*meditatio*), 읽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oratio*),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일(*contemplatio*)이다. 영적 읽기는 스콜라적 읽기(*lectio scholastica*)와 대비될 것이다. 질문을 던지고 찬반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에 답변하는 방식이 스콜라적 방법인데 이 방법은 중세대학이 설립된 뒤, 근대로 이어진다. 오늘 우리의 교육은 크게 보면 이 전통을 수용한 바탕에 서 있다. 공부하는 방법과 훈련 방식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IV.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

1. 목회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셨는가? 바울은 “그가[그리스도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르리니” 라고 쓰고 있다(엡 4:11-13). 교회 직분은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charismata)인데,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oikodome)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섬김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교회 직분자, 특히 이 가운데서도 목사와 교사로 세움받은 목회자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결국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목회란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2.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로 번역된 카타르티스모스(katartismos, 동사 katartizo)는 ‘질서를 세우다’, ‘바로 잡다’, ‘준비하다’, ‘모양을 만들다’, ‘완전케 하다’, ‘필요한 무장을 시키다’ 등등을 뜻한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이들이 그물을 ‘깎고 있는’(katartizontas) 모습을 보셨다(마 4:21). 고기를 잡은 뒤 그물을 다시 고치고 있었다는 말이다(막 1:9참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시편 40편 7편(70인역)을 인용하면서 이 단어를 ‘예비하다’, ‘준비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할 때 ‘지어진’이 카테르티스타이(katertisthai)의 번역어로 쓰였다. 그러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히 13:21)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라고 할 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의 경우에는 모두 ‘온전케 하심’으로 번역되어 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필요한 장비로 무장시켜(영어로 표현하자면 equipping해서) 목적인 바의 일을 수행케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짧게 줄여 번역한다면 ‘구비(具備)시킨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는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이다.

3. 무엇을 위한 구비인가 하는 것이다. 한글 개역판과 최근에 출판된 개역 개정판을 보면 다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문에는 각각의 은사대로 교회 사역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구비시키기 위한 것’(pros ton katartismos)이고, 무엇을 위한 구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봉사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eis ergon diakonias, eis oikodomen tou somatos tou Christo)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섬김의 일을 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를 구비시킨다는 것이다. 목회는 따라서 (다른 여러 일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들을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에 따라 훈련을 시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다.

4. 목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지향한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그러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 나라로 부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엡 2:16).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

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1-3)고 권한다. 이러한 권유를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바울이 권유하고 있는 이유는 “주께 합당하게”(axios tou kurio)(골 1:10), “복음에 합당하게”(axios tou euageliou)(빌 1:27), 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axios peripatesai tes kleseos)(엡 4:1)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정당화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주께, 복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값을 하게, 그럴만한 가치있게)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이 글은 2008년 3월 5일 고려신학대학원 개강 특강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

